

#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●출판학회상 특별공로상 받은 '오늘의 책' 선정위-5년 동안 좋은 서적 보급운동에 기여/매년 내차례씩 18회...총519권 뽑아(한겨레신문 6월29일 신연숙 기자)

●햇빛보는 루이제 린저 한국비판서 2권-「또 하나의 조국」...북한방문기/「전쟁장난감」...유신체제 공격(한겨레신문 6월29일)

●日本에 「부모가 만든 그림책」봄-그림자에 직접 글짓기-그림그리기 열중/가족-애완동물 소재...자녀와 대화통로로(조선일보 7월2일)

●사회를 보는 어린이·청소년의 눈, 무크誌에 담는다-「아이들 나라」 「푸른나무」 「더불어 사는...」 등 창간/고교생들이 직접 기획·집필도(중앙일보 7월4일 金敬姬기자)

●「삼국지」 「태백산맥」 등 세트출판물 인기-독자들 취향 변화...문제작 많은 것도 원인(동아일보 7월5일)

●인기작가 작품 중복출판 많다-제목·목차·장정만 바꿔 내놓기도/고료에 이끌리는 작가양식 문제(한국일보 7월5일 金龍善기자)

●지적소유권 전문가 양성 시급-저작권 심의조정위 세미나 발표자들 한목소리(한겨레신문 7월5일)

●權회장 거취문제 애매한 태도-혁신모임 결성 出協 양분위기(한국일보 7월5일)

●한국현대문학 중공에 알린다-在中國동포학자들 민족적 사업으로 선집 추진/20권쯤 중국어로 번역...「관련자료 보내달라」 요청(동아일보 7월5일 宋煥彥기자)

●출판 검열 저작권대행업체 횡포-수익성 높은 '알짜' 번역권 독점 사례 많아/수수료 따른 로열티 일방적 계약 맹점도(한국경제신문 李成九기자)

●출판계, '분단·통일' 다양하게 조명-자료집·기행문·전문월간지까지/원인분석차원 넘어 실천적으로 접근(한겨레신문 7월6일

신연숙기자)

●「문예지 고료지원 이의있다」-文振院, 문인 7백명 설문조사/「지급부실·편중계제」 불만(중앙일보 7월6일)

●러시아 문학자 미하일·바흐친 국내학계서 '주목'-관련논문·서적출간 잇달아/多聲의 문학이론으로 전체주의적 권위비판...판소리·마당극도 「카니발이론」 적용 가능성(중앙일보 7월6일 奇亨度기자)

●저작물 "정식계약 후 출판하겠다"-저작권법 시행 1년 출판인들의 의식조사(스포츠서울 7월6일)

●출판인들 해외연수 '선진'을 배운다-출판사 서점 등서 현황실습도...일·프랑스 이어 5명 영국으로(스포츠서울 7월6일)

●출판사를 찾아서 <3> 을유문화사-책다운 책 내는 것도 건국사업...「어린이글씨체첩」 이후 43년간 2천여종/「한글큰사전」 「한국사」 등 민족의 책 퍼내(스포츠서울 7월6일 박연호기자)

●문인 '고료지원제' 개선 바람직-文振院, 2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/문예지들, 유명작가에 편중지급...창작기금·문학재단 설립 바라(서울신문 7월7일)

●「원고료지원 개선 바람직」-文振院, 706명 설문조사/75%가 희망...일부 작가 편중·지급부실 등 지적/적절한 대상선정·편집공정성·계회횟수 제한(한국경제신문 7월7일)

●泥田鬪狗 출판업계-고교교과서 1500억 시장 각축...「5년만의 好機」 기획 제작 열올려(매일경제신문 7월7일 金炳在기자)

●출판계 한차례 정화 움직임-3개 단체장 퇴진압력에 몰려 사퇴 준비...「건전한 풍토조성할 새 인물 기대」(한겨레신문 7월8일)

●「저작권」 활용 부진-시행 1년...출현서 설문조사 결과/전문지식 부족, 국제분쟁 겁나...출판사 88%가 출판권 미등록(서울신문 7월8일)

●「가없는 꽃꽃사랑」 책으로 결실-張俊根·尹國炳·全吉信씨 「山野草旅行」 퍼내/觀賞가치 있는 것 5백종 골라 수록...쓰임새·재배요령까지 자세히 설명/카메라에 담기 10년...걸러사진 7백60장 실어(서울신문 7월8일 朴康文기자)

●창간러시 문예지 「戰國시대」-전국문인 3천명에 계간-전문지

30여종 난립/과잉경쟁...절저하 우려도/문인들 "고료지원-편중계제 개선" 요구(조선일보 7월9일 金亨基기자)

●여성지 '춘추전국시대' 예고-「우먼센스」 이어 10월까지 3개誌 창간...생활정보·여성문제 등 전문화 경향(중앙일보 7월11일 金敬姬기자)

●對동구권 출판교류 '청신호'-韓·蘇사상 첫 저작권직접계약의 의의/국내 중개업체 공신폭 인정 받아...직접 교역으로 제3국 개입 견제(중앙일보 7월11일 李憲益기자)

●높아진 통일논의 때맞춰 북한방문기 3종 나와 눈길-저자의 입장·관점·이해도 서로 달라/북측 일정따라 움직여 사실성 부족/「아, 조국과...」在美한국인신부 객관적 관찰...「분단을 뛰어넘어」 용기·친북색채 등 엇갈린 반응...「또 하나의...」 외국여성의 김일성왕국 예찬(일간스포츠 7월11일 朴載均기자)

●「지역사회의 문화사랑방」, '작은 도서관' 늘어-무료·실비 대출토론회도 가져...전국 30여곳 地自製대비 활성화 전망(동아일보 7월11일 鄭星姬기자)

●학술자료 전산화 활발-국립중앙도서관서 10개년계획 전국도서관자료 입력/서울대 장서 12만권 외국학술지 5천권 전산완료(동아일보 7월11일 洪贊植기자)

●高宗玉저 「아, 조국과...」 판권 시비-가톨릭출판사...「천주교 대표자격」/중원문화사...「저작권 이전 출판」(일간스포츠 7월11일)

●서점 '덩치경쟁'...대형화 가속-백백 넘는 곳 전국 33곳...1년새 2배로/「문화욕구 증대 따른 자연현상」출판가 환영/일부선 「교보 지방진출 시도에 자극」 분석(동아일보 7월12일)

●「제주 4·3사건」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-햇빛봄 책 2권 민주화투쟁 결과/현대사 복원작업 일환으로 자극(한겨레신문 7월12일)

●서점까지 불어온 해외여행 바람-관광안내 기행문 등 출판 러시...각종 정보 제공(동아일보 7월12일)

●꿈·그리움 안고 긴 여로에...-여행시선집 「여행의 권유」 출간/국내외 주옥같은 명시 100편 담아...작가 카뮈의 「지중해」 수록 눈길(중앙일보 7월 13일)

●정열의 문학세계 재조명-문단의 논객 蔡光錫타계 1주기 맞아시·산문 전집 나와/미발표 옥중詩·일기·수기·수필 등 묶어...원고만 라면박스로 2개...창작열 반영(중앙일보 7월13일 奇亨度기자)

●교육계 고질병 교과서·참고서 채택 따른 금품수수-정가의 15~30% 떼어 학교상납 수억원대까지/부실·저급책 지정...한곳 서점서 독점판매도/양심적 출판인·서적상들 부조리 실태조사·청산운동 벌여(한겨레신문 7월13일 신연숙기자)

●출판사를 찾아서<4> 탐구당-몇십년 지나도 '살아있는 책' 만든다/「한국사」 「조선왕조실록」 등 국학관계 중점...「탐구신서」 「크세즈문고」 통해 '신학문' 소개(스포츠서울 7월13일 박연호기자)

●「교육현장 사연 너무 많다」 시집 문집 출간 잇따라-「더불어 사는...」 「푸른나무」 「억지로하기」 등/교사·학생 체험담 생생히 담아...참다운 교육의 길이 뭘지 암시(동아일보 7월13일 高美錫기자)

●책출판 감소 14년만의 이변-상반기 중 작년보다 3백만권 줄어/「총선바람 중이난에 저작권법 발효 영향」...출판사는 자율화 따라 천여개 늘어(동아일보 7월14일 宋煥彥기자)

●「미완의 작가」 「蔡光錫전집」 출간-1주기 맞아 '못다 편 문학세계' 새롭게 조명/유고 모은 시집 「산자어...」 등 발간/민중적 민족문학의 실천에 앞장...박노해詩 등 노동문학 발굴 기여(서울신문 7월14일 任英淑기자)

●중공교포시인들 모국서 시집낸다-중건 20명 망향시 2백편 묶어/在美 수필가 주선...가족에 그린 '순결한 서정」(조선일보 7월15일 金亨基기자)

●출판사 급증 속 책발행은 감소-7개월 새 천여개社 신규등록/과당경쟁에 기존社선 기획보류 관망(경향신문 7월15일 安健赫기자)

●북한방문기 국내판권 시비-「아, 조국...」 동시출간 두 출판사 대립/중원문화...「문화운동차원 책 발간 단죄하면 강력 대응」...가톨릭, 재미 저자 위임편지 내세워 「법적조치 검토」(한겨레신문 7월 15일)

●저작권 수출길이 트인다-작년부터 국내출판물 상당 활발/전통문화·청소년책 13종...일·대만·

佛 등서 적극 추진/로열티보다 일부 내용 訂正요구로 교섭지연(서울신문 7월15일 朴康文기자)

●출판사 늘고 출간량 줄어-출판협, 상반기 출판통계 분석...「5공비리」 「광주」 관련 많아(서울신문 7월 15일)

●출판사 늘고 책 발행은 줄어-출판협, 상반기 현황 조사/1000개社 신규등록...부수 3.3% 감소/사회변화...책보다 보도관심 등 주원인/「순수과학」 저조... 「5공비리」 등 취급 많아(한국경제신문 7월16일 李汀桓기자)

●음란·저속 잡지 판친다-윤리 위 올들어 119건 제재조치...지하출판물은 노점 등 계속 유통(한국일보 7월16일)

●두 출판사 소련소설 동시 번역-「아르바트...」 국내판권 싸고 입방아/열린책들... 중개업체와 저작권 계약 체결/동문사... 별 생각 없이 UCC가입전 추진/「인정」 불인정' 의견 구구... 계약통로 개방이 방지책(한겨레신문 7월16일)

●「북한의 법과 법이론」 출간-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5명 참여/「법은 당정책 실현기 위한 무기」...기본권은 개인보다 조직 강조(한국일보 7월16일 李基稔기자)

●문단, 「노동문학」 논쟁 재연-「민중문학」 실체-주체 싸고 젊은 평론가들 열띤 공방/「노동자 시각으로 시대적 아픔 형상화」... 「투쟁-일상구면 양분 바람직하지 못해」(조선일보 7월16일 金亨基기자)

●출판사는 늘고 발행부수는 줄고...출판계 「이상불황」 긴장-전년비 3백만권 줄어 「대이변」/스포츠봄-총선바람 용지난-저작권법 영향(조선일보 7월16일 金泰翼기자)

●빨치산 수기 「南部軍」 첫 공식출판-李泰씨, 6·25 지리산 체험을 회상/출간 5일만에 초판 5천부 매진/「소설 「지리산」에 기록일부 표절」...80년대 분단문학 영역확대 계기(일간스포츠 7월18일 李滿기자)

●한국한문학 「뿌리찾기」 활발-중국 아류 아닌 우리 문학으로 인식/연구·국역도서 출간 잇따라(중앙일보 7월18일 李憲益기자)

●「방학중 책3권 정도는 읽자」-초중생 「여름독서」 가이드...하루 1시간씩 오전중이 좋아/국교생은 고전·철학동화·인문과학 권장/중학생 친구끼리 독서클럽을(경향신문 7월18일)